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동호회를 쉬고 신약성서 맥잡기를 계속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온 교인들이 11시에 모여 찬양대의 칸타타와 함께 주님의 부활을 경축합니다. 부활절 달걀도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연구소가 주최하는 예수 포럼이 17일(월) 오후 5시 30분에 우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하셨던 한완상 박사님께서 <내 인생의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강연합니다.

18일(화) 오전 10시에 중구용산지방 여성교회 지회장 모임이 우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고 박정오 목사님의 1주기 추도예배를 오는 20일(목) 오전 11시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오후 집회 후 담임목사실에서 모입니다.

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호로 나올 <푸른 언덕>에 실을 글을 장르와 상관없이 모집합니다. 30일 마감입니다.

김기석 목사가 번역한 <기도의 사람 토마스 머튼>이 청림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침묵과 홀로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삶의 균더더기를 덜어내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새교우 소개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늦겨울에 떠난 사순절 순례의 여정이 고
 빛사위를 넘고 있습니다. 노란빛으로 피어나는 꽃망울이 신비로운
 이 계절에 우리는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고독과 불안이 왜 없었겠습니까만 주
 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조차 주님의
 깊은 침묵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벌이는 증오와 폭력의 난장을 외면하셨더라면 주
 님도 평범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
 랑과 섬김과 희생만이 참 생명의 길임을 온 몸으로 증언하고 계십니
 다. 이제는 거룩함과 욕망 사이에서 서성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예
 수님만을 우리의 길로 삼고 싶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
 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장민숙 구명자 김근중 정옥영 김정길 최숙화 박창운 허정운 이봉옥
 홍순구 안홍숙 박어진 정은영 최종미 권미숙 이성운 무명1

월정헌금:

고숙이 배부레 송의섭 이갑재 이광섭 김수연 이성범 이재구 황선희
 이인용 전영자 조순덕 황경순 이수정 배재경 문홍일 유혜경 이희균
 김영한

감사헌금:

양재성 김용해 정현창 고재중 장은임 조항범 오현정 이재문 김영한
 이희균 박병구 이종현 송동준 김진경 권혁순 박혜경 이순정 유혜경
 오래된 미래 무명3

생일감사헌금: 임주빈 최현옥 윤수진 조항미 김준호

100주년 기념헌금 :

권미숙 조항범 오현정
 (100주년 헌금 누계 : 166,680,000원)

	장혜숙	장혜숙	박영희	이정섭
	노순옥	정경례	김윤수	배부레
	임정자	임정자	이소순	이은옥
	문영혜	박경선	문영혜	이명희
	안정숙	박애순	문금석	조병주
	박홍재	곽권희	김순복	백묘현
	박효선	허정윤	임미심	박효선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교회
	이순정	김금순	유영남	강순배
	이형숙	권미숙	이형숙	구성실
	안홍숙	오현정	임수연	박찬정
	백혜숙	정옥영	김희우	정옥영
	송양진	유경순	김혜권	교회
	이영란	박미영	이증자	유혜경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박혜경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 마틴 루터 킹

우리는 초대 교인들의 복음적 열심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옳다고 여기는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명성과 재산과 목숨까지도 희생했습니다. 숫자는 얼마 안 되었지만 질적으로는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복음은 유아학살과 검투사들의 처참한 싸움 같은 야만적인 죄악을 멈추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로마 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학문적, 과학적, 종교적 자유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머슨도 <자기 신념>이라는 글에서 “인간이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독교인이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움 속에 편리한 길과 사회의 칭찬만을 부끄럽게 따라가는 기독교인도 정신적, 영적으로 노예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로웰의 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실패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노예입니다. 아무 소리도 못한 채 움츠리고 있기보다 욕을 먹고 비웃음을 당하고 비난받는 일을 선택하지 못하는 자도 노예입니다. 그들이 생각해야 할 진리의 요구에 두세 사람과 함께 옳은 길에 서지 못하는 사람도 노예입니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기쁠 때는 찬양하고, 슬프고 힘들 때는 기도하십시오. 누군가의 가슴의 사랑과 평화의 씨를 심기 위해 정성을 다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명령하시니 그 명령을 힘써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호흡은 거칠고, 우리 마음에는 가시와 영경귀만이 우거져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참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빛으로 우리 앞길을 밝혀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 맥잡기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인도 / 김기석 목사	기도 / 장재영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조병무 장로	박애순 권사

3월	영접위원	김철수 조문규 최철수 하정석 박애순 진정숙
	헌금위원	한완식 박홍재(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는 오랫동안 특별 구역에 갇혀 있었는데, 얼마 동안 있었는지 확실히 모르겠다. 시간이, 상당 기간의 내 감옥 생활의 모든 날들을, 하나의 긴 하루로 압축해 버렸기 때문이다. 세뇌 공작은 더 심해졌으나, 방법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확성기에서는 이제 이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기독교는 죽었다!
기독교는 죽었다!
기독교는 죽었다!

나는 어떤 날 하루를 똑똑하게 회상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림엽서를 한 장씩 주면서, 가족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면회오라는 편지를 하도록 했다. 말한 날짜에, 그들은 나를 면도시키고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까지 주었다. 몇 시간이 흘러갔다. 나는 번쩍이는 하얀 타일을 쳐다보며 앉아 있었으나,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저녁이 되자, 간수만 바뀌었다. 나는 내 엽서가 부쳐진 일도 없으며, 나처럼 고집부리는 다른 죄수들에게도 같은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그 때는 알지 못했다.

확성기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울기 시작했다. 확성기는 다시,

그들은 네 소식을 이제는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네 소식을 이제는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네 소식을 이제는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라고 떠들고 있었다.

나는 이 말들을 듣고 참을 수 없었으나, 그렇다고 확성기를 꺼버릴 수

도 없었다. 그 다음 날 나처럼 실망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잔인한 ‘투쟁 회의’가 열렸다. 강연자는 다른 사람들의 부인들은 거의 빠짐없이 다 왔었다고 말했다. 우리들은 바보들이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 여자들은 바로 그 순간에 다른 남자들과 자고 있다고 떠들었다. 그는 자기가 구사할 수 있는 온갖 음란한 용어를 다 동원해서, 그들이 벌이고 있을 행위를 묘사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겠는가?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무신론자가 되어, 거리의 부랑아로 떠돌고 있으며, 자기들의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어리석은 바보들이라고 했다.

특별 구역에서 나는 매일,

기독교는 죽었다!
기독교는 죽었다!
기독교는 죽었다!

라는 확성기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리고 이윽고 나는 그들이 몇 달 동안 우리에게 들려준 소리를 믿게 되었다. 기독교는 죽어 있었다. 성경은 말할 수 없는 불신앙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나는 그 시대가 온 걸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나는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게 되었다. 아마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생각 때문에, 나는 영혼을 죽이는 독약을 넣어주는 가장 악랄한 최후의 세뇌 공작 수법에서 구원받은 것 같다.

나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며 울부짖으셨을 때에도, 그 분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다. 그가 무덤 속에 시체로 누워있을 때에도, 그녀는 가까이서 울며 그가 살아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나도 마침내 기독교가 죽었다고 믿으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기독교를 믿고, 그것이 틀림없이 다시 일어날 터이니, 그 때까지 그 무덤 곁에서 울고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 글은 유대계 루마니아인으로 루터교 목사였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의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란 책에서 옮겨왔습니다. 저자는 26세에 기독교로 개종한 후 나치기간 동안 투옥된 것을 비롯, 소련 군인들에게 러시아서 성경을 배포하다가 투옥된 이래 무려 14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복음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았습니다.